

(주)대경케미칼



한 번 고객이면 영원한 고객

'(주)대경케미칼'은 신동수 사장이 1988년 12월 '대경수지'라는 상호로 인천시 서구 불로동에 스티로폼 형틀 생산공장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업계에 진입했다. 2002년 자동화 설비를 증·개축하고 기업합병을 통해 회사를 확장하여 현재의 김포시 운양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함과 동시에 법인 전환을 통해 상호를 (주)대경케미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사는 김포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금년 10월 중 안산 시화공단으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소형성형기(500기) 7대, 대형성형기(1360형) 8대의 설비로 연간 1,000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대경케미칼이 추구하는 기업 이념은 '맑고 깨끗한 환경과 자연친화, 제품의 최고화, 최고의 고객만족 추구'이다.

소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스티로폼 제품의 환경성이 대단히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신동수 사장의 생각이다. 오히려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스티로폼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체재의 원료인 삼림의 파괴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용되고 버려진 스티로폼의 적극적 회수·재활용이 전제 되어있다. 그래서 그는 정부의 EPR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협회 가입을 통해 EPS재활용 의무생산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협회의 재활용 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수년간 협회 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최고화를 추구하여 최첨단 회로설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향상을 기하고 있다. 앞선 기술개발로 품질은 높이고 원가는 낮춤으로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나 최고의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주)대경케미칼도 예외일 수 없다.

대경의 임직원들은 '한 번 고객이면 영원한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대경의 제품을 한 번 사용한 고객이면 틀림없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도록 가격, 품질과 서비스

에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티로폼 포장재 시장은 최근 여러 가지 여건의 악화로 주를 이루던 가전 완충재나 농·수산물 상자 등 기존의 시장은 축소돼 가고 있는 형편이다. (주)대경케미칼도 시대 흐름에 맞춰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유통포장인 김치상자, 갈비상자, 느타리버섯 상자 등 다양한 식품포장을 주력 상품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자연송이 상자, 굴비상자 등은 제품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 및 안전 운반이 필수적임으로 점차 그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대경케미칼은 요즘 활발히 연구가진 행 중인 육상농화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건을 육상에 화단을 만드는 데 쓰이는 운동판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주)대경케미칼의 임직원 모두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가격과 품질에서 앞서 나가으로써 제품 경쟁력에서 업계의 선두 주자의 자리를 확보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신동수 사장

유난히 눈망울이 크고 덩치가 커디란 어느 희극인이 방청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 민망한 상황이 되면 부끄러운 듯 '동수예요' 하고 자리에 앉는 인기 개그 소재가 있었다. 그 순진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의 수줍음 이보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주)대경케미칼의 신동수(申東洙) 사장은 마침 그 희극인과 똑같은 이름 - 성(姓)도 같다 - 이다. 또 그 큰 눈도, 덩치도 닮았다. 그 수줍음도 조금은 닮았는지 한동안 대외적 회사소개를 사양해왔다. 다른 점을 든다면 희극인 신동수가 직업에 걸맞게 재미있게 생긴 얼굴이라면 기업인 신동수는 호남(豪男)형이라는 것이랄까...

큰 엄장에 소름 돋은 눈을 가진 그를 보며 무척이나 선량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선량함으로 사업을 어찌해 가나 하는 '썰데없는 생각' 도 했다. 그건 정말 '썰데없는 생각' 임에 틀림없다. 1988년 대경수지 설립 이래 20여 년간 그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며 키워왔다. 그는 현재 업계의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간의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피' 로 업계의 내일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신동수 사장을 만났다.

환경사랑 : 스티로폴 가공사업을 시작할 동기는?

신 사장 : 스티로폴은 가벼우면서도 타재질에 비해 충격흡수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1988년 당시만해도 가전 완충재, 농수산물 포장, 건축단열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재질보다 경제성이 있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30이 되기 전의 나이로 스티로폴 형틀제조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환경사랑 : '맑고 깨끗한 환경과 자연 친화' 가 첫 번째 기업 이념이다. 일반제조업체의 기업이념으로는 조금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신 사장 : 물론 일반 제조업체의 기업이념으로는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모든 합성수지가 그렇지만 특히 스티로폴은 부피가 크다는 재질의 특성상 폐기된 후의 처리문제로 환경을 해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알리기 위해 '맑고 깨끗한 환경과 자연 친화'를 첫 번째 기업 이념으로 내걸었다. 일반인들이 '비환경적' 이라고 생각하는 오페는 단지 쓰레기 처리의 문제일 뿐인데 재활용의 활성화로 이미 해결이 된 상태다. 오히려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대체 제품보다 스티로폴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삼림의 파괴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진짜 '자연 친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환경사랑 : 어떻게 하면 '한 번 고객' 이 '영원한 고객' 이 될 수 있나?

신 사장 : 항상 고객의 요구를 고객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최선의 가격,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 하지만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환경사랑 : 앞으로의 설비 투자나 사업 확장 계획은?

신 사장 : 업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술 인력난, 고임금으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타개책의 하나로 현재의 자동설비를 각 부분별로 세분화하여 설비투자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업 확장과 관련해서는 경기 여건이 불투명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원·부자재 특히 유가 폭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내실을 기하는 일들 경영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물론 향후

경영 여건이 호전되면 주저없이 과감한 설비 투자 등 사업 확장에 나설 생각이다.

환경사랑 : 스티로폴 형틀업체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신 사장 : IMF 이후 기존 업체들의 과잉 투자 설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이 문제다. 그로 인한 업체간의 출혈 경쟁, 매출감소,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이 업계의 최대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사랑 :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신 사장 : 쉽지 않은 얘기지만 기업 상호간의 신뢰의 바탕 위에 기업합병(M & A)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어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가능하며 그를 바탕으로 한 새롭고 다양한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져 시장 개척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여건에서만 높은 부가가치의 특수제품 개발 등이 용이해져 스티로폴 형틀 시장의 새로운 영역(Blue Ocean)이 확대될 것이다. 업계가 언제까지나 기존제품의 단가 싸움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그는 주인의식을 갖고, 신뢰를 바탕으로 품질향상을 꾀하고 내실있는 운용으로 경쟁력있는 회사가 되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대경의 전 사원들에게 주문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러한 그의 소신을 현실화시키고자하는 노력이 그가 회사를 운용하는 목표이기도하다.

최근의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고객'을 늘리고자하는 대경의 노력이 그의 그러한 목표 달성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주)대경케미칼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4-3
전화 : (031) 998-4445
Fax : (031) 998-4567
Website : www.daekyungst.com.